

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감염병



이우주 감염관리실장
의료법인인성의료재단한림병원

바야흐로 방학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그동안 힘들었던 일상을 벗어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.

여행가기 전, 새로운 볼 것과 먹을 것이 있는 핫 플레이스를 찾아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, **여행지에서 유행하는 질병에 대한 정보**를 알고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은 어떨까요?

1 말라리아: 말라리아 원충을 매개하는 모기에 물리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열성질환으로 국내에서도 삼일열 말라리아 발생이 가능하나 동남아,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이환될 수 있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중증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**예방약을 복용**하여야 하며, 좀 더 자세한 내용은 5월 칼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
2 장티푸스: 장티푸스 균(*Salmonella typhi*)에 감염된 환자나 보균자의 소변이나 대변에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했을 때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. 잠복기 1-3주를 지나 발열, 소화기 증상(구토, 설사, 변비 등), 발진 등 증상으로 나타납니다. 여행을 예정한 지역이 아시아(특히 동남아), 아프리카, 남미 등 국가라면 호발국가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최소 2주 전에는 **예방접종**을 시행하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.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일반 병원 중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신분증, e-티켓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준비물을 확인하십시오. 예방효과가 100%는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음식 섭취는 주의하여 익힌 음식, 깨끗한 물로 닦은 안전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
3 A형 간염: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열, 구역, 황달, 심한 경우 간부전 등의 급성 간염 증상으로 나타나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진단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. 주로는 공중보전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호발하고,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 전파가 되므로,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이고, 여행 시 손을 잘 닦고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 장티푸스와 마찬가지로 **예방접종**으로 예방이 가능하며, 접종은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지고, 예방접종 시 항체 생성률이 거의 100%이므로 해당 국가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챙겨서 맞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
4 황열: 최근에는 동남아, 중국 등 근거리 국가 외에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등 원거리로의 여행, 봉사 또는 직장 출장 관계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. 이 분들의 경우 **현지**에 있는 매개모기에 물려 황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발열, 황달, 출혈 등이 나타나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, 황열에 대비하여 **예방접종**을 꼭 시행하고 출국하여야 합니다. 특히 황열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로의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, 예방접종이 필요한 지역인지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예방접종은 모든 병원에서 가능하지 않고, 검역소와 검역지소,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21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가능하므로 사전에 가까운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접종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